

재침례파의 수장: 메노 시몬스

이병선



종교개혁에 관한 역사적 해석에서 '과연 올바른 역사 인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특히 종교개혁의 좌파(the left-wing of the Reformation)라 불리는 재침례파운동에 관해서는 더욱 그 해석과 평가가 다양하고 상반되기도 하여 일치되는 주장을 찾기란 참으로 힘들다. 재침례교의 신앙과 그들이 추구한 기독교 이념은 동시대의 비평이나 현대에 이르는 많은 학자의 눈에도 그리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는 평범하고 진솔한 명제가 적용된 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왜곡되고 폄하된 평가를 받아온 16세기 재침례파운동은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자주 회자되는 주제다. 이번 호에서는 재침례파운동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조명하고 그들이 진실로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지도자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를 중심으로 성찰해 보기로 한다.

역사적 정황

초대교회와 기독교 사상의 전통은 중세를 지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세 시대 제도적 차원의 교회는, 적어도 첫 번째 밀레니엄인 서기 일천 년 까지는 명목상 하나의 교회를 유지해 왔다. 로마제국, 정확히는 서로마제국을 무너뜨린 북방민족에 의해 유럽의 주인공들이 바뀌며 시작된 중세 시대에는 로마의 제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초기 기독교 전통에 상당한 이질적 요소들이 첨가되었다. 로마 건국 시부터 보여 준 혁연한 동서방 간의 차이는 그 간격이 점차 벌어지다가 중세 시대를 거치며 동서방이 정치적으로 분립하면서 완전히 이질화되었다.

서로마지역의 교회([서방교회](#))는 다민족 국가들 속에서 권위가 높아진 반면, 동로마지역의 교회([동방교회](#))는 비잔틴왕국의 자체 팽창과 축소 속에서 그레코-로만 문명과, 이를 계승한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비잔틴 문화라는 특수성 속에서 성장했다. 이런 배경 차이로 동방교회는 결국 서기 1054년 서로마교회와 결별했다. 이제 하나의 보편적 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로 각각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다 동방교회 즉 동방정교는 1453년 비잔틴제국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튀르크](#)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구심점이 서서히 러시아로 옮겨갔다. 이후 '제3의 로마'라 불리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정교라는 꽃을 피우기도 했지만, 그 세력은 서방의 로마 가톨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서방교회는 본인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헬라어로 '보편과 전통'을 뜻하는 '가톨릭(Catholic)'이란 명칭을 사용하며, 중세 시대에 영적 권위([사도권](#))와 세속권이라는 두 가지 권력을 모두 확보했고, 그 결과

로마감독은 ‘교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중세 천여 년의 세월을 군림했다. 영적 권위에 세속적 권력까지 확보한 로마교회는 점차 신자들을 영적으로 보살피는 일보다는 세상 권세와 물질적 부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게다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억제하는 성직자 독신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대교회의 신앙과 모습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다.

11세기에 시작되어 2백 년 이상 지속된 십자군전쟁은 동서방 문물의 교류를 가져왔다. 특히 15세기 비잔



십자군(Crusaders)

틴제국이 멸망한 이후, 동방 문화와 인재들이 서방으로 유입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르네상스는 예술 분야를 넘어 학문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인문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상적 각성을 일으키며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어거스틴수도회의 수사이며 대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당시 복잡한 정치적 배경 하에서 지역

선제후들의 보호를 받으며 성공을 이루게 된다.

기존 교회와 권력에 대항하여 형성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로 인해 ‘하나의 교회’라는 원칙이 깨지게 되자, 개신교는 더 많은 분파로 나뉘어 다

양한 교회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표어로 내세우며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교회 자체의 힘으로 종교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재침례파운동’이다. 재침례파운동과 메노 시몬스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그 특징들 중 하나인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 전통

본래 교회는 국가나 권력기관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시작되었다. 기독교 초기의 모습은 교리적 논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상고와 이에 따르는 신유와 이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생활 강령이 중심이 된 기독교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제국교회화되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먼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공개 토론을 통한 기독교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었고, 국가의 장력을 통하여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밖에 시기의 배교자들을 교회로 복귀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도나투스파가 문제를 제기하고, 제국교회가 이를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후 도나투스파 교회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나, 7세기에 이 지역이 이슬람화되면서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참고로 이보다 이전 시기에도 교회 지도부 중심에서 멀어지는 몬타누스주의가 출현한 바 있다. 이는 2세기 중엽 교회가 안정화되면서, 사도시대에 비해 신유와 성령의 사역이 줄어들게 되자, 그 반동으로 권위주의적 감

독직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성령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말씀보다는 직접 계시를 더 중시하였다. 또 교회 내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과 성서의 광신적 해석 때문에 몬타누스운동은 4세기 공의회를 통해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다. 분파적 독선주의와 종말론적이고 신비주의적 개혁운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주장한 일부 긍정적 요소들은 후대에 교훈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동방의 신비주의적 명상과 로마 제국교회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원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과 깊은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밀접성,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이웃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추구하는 수도원은 기존 보편 교회에 비해 신선한 이미지를 주었다. 하지만 각 수도원의 설립이나 이념도 로마감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기에 보편 교회와 거리를 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중세 시대 중반, 보편 교회와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신앙운동으로는

피터 왈도(Peter Waldo)



피터 왈도(Peter Waldo)라는 인물에 의해 주도된 왈도파운동을 들 수 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마 19:21)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피터 왈도는 추종자들을 모아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집단을 조직하였

다. 두 사람씩 짹을 지어 동네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국어로 설교했고, 로마교회의 미신적 행위를 거부하여 연옥교리, 성상 숭배 등 비성경적 요소들을 반대했으며, 평신도들도 설교와 성례 집전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곧 지역 주교와의 설교권 마찰로 파문을 당했고, 이들의 개혁운동은 후대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제도권적 개혁과 자생적 개혁의 마찰

16세기 종교개혁의 크나큰 바람 속에서 재침례교도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루터와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이 군주나 지방의회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권위적(magisterial)’ 개혁이었다면, 재침례파운동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며 자생적으로 성장한 ‘급진적(radical)’ 개혁이었다.¹ 그러나 루터 역시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급진적’이었기에 용어의 사용에는 항상 정황 파악이 중요하다.²

인문학도였으며 종군 신부였던 츠빙글리는 시의회의 지지를 받으며 교회 내 개혁을 시작했다.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개혁을 논하던 츠빙글리는 너무 급진적 개혁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의회와 개혁의 진행을 조율하였는데, 이를 시의회(국가)와의 타협으로 보는 일부 츠빙글리의 지지자들 중에서 그를 비판하며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콘라드 그

1 재침례파운동에 관해 기존 개혁과의 차별성을 두는 본 용어(radical vs magisterial)는 윌리암스 (G.H. Williams)의 저서 *The Radical Reformation*이 1962년 미국에서 출판되면서 학계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2 Carter Lindberg, *The European Reformation* (Wiley-Black Well, 2010), 11.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

레벨(Conrad Grebel)과 조지 블라우록(George Blaurock)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은 츠빙글리의 2차 공개토론 시 츠빙글리가 시의회와 타협하며 국교회 방식을 취한다고 비판하였고, 동시에 믿는 자의 침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로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것이 재침례파인 스위스 형제단(Swiss Brethren)의 시작이다. 스위스 형제단은 신자의 침례 외에도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시기적으로 약간 후인 칼빈의 경우처럼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개혁에 착수한다면, 결국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재침례파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한 이유였다.

재침례파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기에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1962년 윌리암스(G.H. Williams)의 *The Radical Reformation*이 출판된 후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부흥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기존 로마 가톨릭교회나 세상 권세를 힘입어 개혁을 이룬 권위적 개혁에 비해 다양하고 독립적이며 자생적 형태인 급진파 재침례교도의 개혁은 순조롭고 안정적인 상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개신교 신앙관에 신자의 침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성경의 절대적 권위, 무력 사용 및 병역의



조지 블라우록(George Blaurock)

거부 등은 기존 어느 체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독특한 신앙 집단을 이루며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다. 재침례 신앙관으로 처참한 죽음을 당한 미하엘 자틀러(Michael Sattler)를 시작으로 수많은 재침례교도가 운동 초기에 순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명한 신학자보다는 재침례파 특유의 윤리를 따르는 단순한 기독교 생활이 강조되었다.



화형당하는 재침례파 교인(The burning of a 16th century Dutch Anabaptist Anneken Hendriks)

종교개혁 시기에 국가와 교회의 분리주의는 그 자체로는 좋은 아이디어였으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현대의 시각으로 과거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에서 반대파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

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의 분리주의 이념은 이러한 방어체계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침례파는 더욱 핍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재침례파운동은 농민운동에 참여한 일부 지도자들의 영향과 계속된 핍박으로 인해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꿈꾸며 매우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와 멜히오르 호프만(Melchior Hoffman)의 영향을 받은 재침례파 무리들은 뮌스터(Münster)에 모여들어 이상한 형태의 종교집단을 이루게 된다. 초기 국가와 교회의 분리 그리고 평화주의를 주장했던 재침례파운동이 이제는 하나의 자치 도시를 이루며 무기를 들었고, 구약을 본떠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면서 지도자 라이덴의 존(John of Leyden)은 15명의 부인을 두기도 하였다.



토마스 뮌처
(Thomas Müntzer)



멜히오르 호프만
(Melchior Hoffman)



라이덴의 존
(John of Leyden)

이러한 형태의 열광적 신앙집단을 이루었던 도시 뮌스터는 결국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세력에 의하여 탈환되었고, 참여자들은 모두 처참한 죄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전부터 재침례교를 꼽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에게 더욱더 핍박과 증오의 이유를 만들어 주

었다. 이처럼 16세기에 재침례교도라는 호칭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불리고 있을 무렵, 이들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메노 시몬스이다.³

메노 시몬스의 등장과 사역

메노가 자란 네덜란드 저지대 지방(the Low Countries)은 인문주의의 영향, 공동생활 형제단, 성례주의, 영성주의 등 깊숙한 종교적 토양을 지닌 곳이었다. 메노 시몬스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평줍(Pingjum)에서 가톨릭 교구 사제가 되었으나 교회와의 영적 갈등을 느끼고 5년 후 재침례파에 가담하였다.

가톨릭 사제 시절 메노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화체설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이것이 성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당시 이 지역에 퍼져 있던 성례상징론(sacramentarianism)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는 유아세례에 관해서도 의심을 품고 그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성서나 당시 개혁가들의 논증은 매우 빈약하였고 결국 믿는 자의 침례가 올바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시기적으로는 뮌스터 사건의 비극으로 인해 재침례파가 오해와 기피의 대상일 때, 신앙적 진리를 찾아 1536년 사제직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였다.

재침례교의 역사에서 메노 시몬스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재침례교도를 '메노나이트(Mennonites)' 즉 '메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름 붙인 것만 보

³ Walter Klaassen, *Anabaptism: Neither Catholic nor Protestant* (Ontario: Pandora), 1.

더라도 그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오베 필립스(Obbe Philips)로부터 침례를 받고 흩어져 있는 재침례파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하였다. 예상한 대로 재침례파 지도자의 생활은 전직 사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1539년 1월에는 그가 있던 그로닝겐 지방에 칙령이 발표되어 모든 재침례교도들이 떠나야만 했고, 이 방랑의 지도자를 돋는 자 또한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다.⁴

신성로마제국 황제 찰스 5세는 마르틴 루터로 인해 보름스 칙령을 공포했던 것처럼, 메노에게도 상금을 수반하는 체포령과 함께 그 누구도 절대 그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노는 암스테르담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재침례파운동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기까지 했다. 그중 1540년에 나온『기독교 교리의 토대』는 재침례교의 신학과 교회생활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성경상

의 개념과 언급들로 가득 찬 최고의 걸작품이다.⁵

그는 북부 독일과 홀스타인, 발트 해안 지방에서 활동하였는데, 신령주의자였던 다비드파(Davidites)⁶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며, 더크 필립스



더크 필립스(Dirk Philips)

4 William Estep, 『재침례교의 역사』, 정수영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193.

5 오연수, 『종교개혁사』 (서울: 한글, 2000), 119.

6 '다비드파'란 데이비드 조리스(David Joris, 1501~1556)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데, 데이비드 조리스는 멜히오르 호프만(Melchior Hoffmann, 1498~1543)의 제자로 한 때 윈스터 사건에 가담하였으며 윈스터의 폭력을 거부하였으나 중혼제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었다. 극도의 신령주의(spiritualism)자였던 그는 성경이 불완전하기에 자신의 영감으로 쓴 책으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윈스터 이후 일부 재침례교도들이 그를 따랐는데, 메노는 이들을 그의 영향에 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Dirk Philips)의 도움으로 흩어진 재침례파 교도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메노 시몬스의 신학

메노 시몬스는 모든 재침례파운동가가 그러하듯 항상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체계화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다만 성서에 대한 집중적인 묵상에서 나온 통찰력으로 소책자들을 저술하였다.

먼저 메노 시몬스의 성례관을 살펴보면, 그가 가톨릭 사제 시절부터의 심해 오던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반대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이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⁷ 이는 그가 츠빙글리의 분파에서 파생되지는 않았으나, 츠빙글리와 그의 분파인 스위스형제단과 개념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메노는 화체설은 이방인들이 만들어 진 제물로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⁸ 또한, 가톨릭의 미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는 단번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온전한 희생을 하셨다고 주장하며, 희생 제사 반복설을 단호히 거부했다.⁹ 그러므로 메노는 종세의 개념이었던 성만찬이 침례 후의 죄를 씻긴다는 개념도 반대했다.¹⁰

이러한 메노의 사상은 당시 시민들의 태도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 당

7 Menno Simons, *The Complete Writings of Menno Simons*, c. 1496–1561, ed. J.C. Wenger and trans. Leonard Verdui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56; rpt. 1984), 153. [이하 CWMS 표시].

8 Menno Simons, CWMS, 154.

9 Menno Simons, CWMS, 152.

10 Menno Simons, CWMS, 156.

시 신자들은 병으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성수, 금식, 순례, 화체설에 근거한 성례 등을 실행하여 그들을 치료해 보려고 시도했다. 반면 메노는 온전한 치료자이신 예수의 능력은 강력한 말씀에 있으며, 그의 주홍 같은 붉은 피가 속죄의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라고 강조했다.¹¹ 그러나 메노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부인하는 반면, 영적 임재에 대해서는 그 여지를 남겨 두었다.¹² 그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빵과 성령의 포도주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다소 남아있는 성례주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¹³

메노의 신학 중 다소 관심과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그리스도 성육신론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본성은 천상의 씨앗인 말씀을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적 생명과 인간적 생명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대적자들은 인성의 근거를 마리아에게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끈질기게 그를 이단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메노가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사도 요한이 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요 1:14)는 성경구절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 신성과 인성의 분리가 아닌 혼연된 하나의 그리스도로 보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성육신을 신비를 포함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혹 마리아로부터 인성

11 Menno Simons, *CWMS*, 157.

12 Joel Schmidt, “The Challenge of Menno Simons’ Symbolic View of the Lord’s Supper,” *The Conrad Grebel Review*, 2006, vol. 24, 9.

13 “... hungry consciences are fed with the heavenly bread of the divine Word, with the wine of the Holy Ghost.” Menno Simons, *CWMS*, 148.

을 받았다고 볼 때 초래되는 죄의 문제를 끊으려는 구원론적 노력의 결과였다.¹⁴ 그의 그리스도 성육신론은 성례론과도 다이나믹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늘의 말씀으로부터 왔고 마리아에게는 육체를 취한 것이 아닌 오직 양육을 받았다고 했듯이, 그의 성찬론 역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는 이 땅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의 능력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¹⁵ 신령한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불멸하는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¹⁶

그에게 교회는 진실한 성도들의 모임이었기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감이었고 신실하고 참회하는 자들에게 화해의 선물이었다.¹⁷ 그러므로 행실이 잘못된 신자에 대한 훈련적 제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의 입장에선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⁸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육체론은 결국 메노로 하여금 그의 신앙 공동체가 흠 없이 고결하고 진실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¹⁹

14 Byung-Sun Lee, “From the Spotless Lamb To the Spotless Community; Menno Simons’ Understanding of the Incarnation” (M.Th.diss., The University of Aberdeen, 2005).

15 Schmidt, “The Challenge of Menno Simons,” 11.

16 Menno Simons, *CWMS*, 153f: “the inner imperishable man of the heart eats in a spiritual sense the imperishable body and blood of Christ which cannot be eaten or digested.”

17 Menno Simons, *CWMS*, 150.

18 Schmidt, “The Challenge of Menno Simons,” 19.

19 Lee, “From the Spotless Lamb To the Spotless Community,” Ch. IV.

메노 이후 재침례교도 운동

메노 시몬스의 지도력은 네덜란드와 독일 북서지방 등에서 많은 추종자를 배출했고, 그들은 차츰 메노나이트(Mennonites)로 불리게 되었다. 메노의 동역자였던 더크 필립스는 1561년 메노가 죽은 뒤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 그런데, 메노 생존 시부터 불거진 윤리적 문제인 규율배반자를 엄격히 격리 또는 파문시키는 제도(Ban 또는 Shun)에 관한 의견 차이가 내부적으로 더욱 벌어져 워터랜드파(Waterlanders)가 생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영국의 비국교도인 존 스미스(John Smyth) 일행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에 왔을 때, 메노나이트 일원들은 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어 후에 그들 중 일부가 영국으로 돌아가 침례교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후 재침례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국교의 요소가 강한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하게 된다. 특히 영국인 윌리엄 펜(William Penn)

의 지도 하에 펜실베니아주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현재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재침례파교도들에게 메노 시몬스는 항상 전설적 신앙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현재 재침례파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메노 시몬스는 믿는 자의 침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온전한 신앙의 자유, 투철한 성경중심주의, 평화와 이웃 사랑 등 많은 메시지를 남겨 주었고, 그가 교회사에 남긴 역할과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



재침례교파 중 하나인 애미쉬(Amish), 이들은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한다.



이병선 베로아국제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교수